꿈을키우는대학교
대표 (043)645-1125~9
세명대학교

安東權氏宗報

울산 기획인쇄·도서출판
대표 권순학
Tel. 02.2268.2455
e-mail. emsmiok@naver.com
webhand.co.kr (ID. emsok/PW. 2455)
Mobile. 011.798.2455
서울시 중구 퇴계로 57길 12층무로4가)

[월간] 2013年 4月 1日(월요일) ☎ 대표 (02)2695-2483~4 WWW.ANDONGKWON.ORG 종보보급소 070-8866-2480 權氏 紀元1084年 第 454 號 1

제420주년 행주대첩제와 신기전발사 시연회

고양시 충장사제전위원회는 제420주년 행주대첩기념제를 지난 3월 14일 오전 9시반부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행주산성 충장사에서 행주대첩기념제가 충장공 권율도원수의 무훈을 추모하고 호국충정을 기려 엄숙히 봉행하였다.

이날 행사를 위해 최 성 고양시장을 비롯 박윤희 의회의장, 방규동 문화원장, 이충구 제전위원장, 제전위원과 덕양(을) 새누리 김태원 의원 등이 내빈으로 참석하였으며, 이동재 권율부대장을 비롯 3군사령부 의장대, 군악대와 권율부대 시연회 행사병력 등이 대거 참석하였고 또한 지역 내 유림단체, 주민 일반관람객, 중, 고교 학생 등 총 400여명이 참석하였다.

△3.14 충장사에서 420주년 행주대첩제 제전향사를 올리고 있다.(축관:권정택)

안동권문에서는 권혁승 대종원 상임부총재, 권경석 사무총장, 권태강 검교공파종회장, 권영위 정간공회장, 권영범 충장공도원수종회 회장을 비롯 권기택 연천공회장 등 청주, 청원, 음성, 포천, 남양주, 강화, 김포, 인근 일산, 고양 등 각지에서 많은 후손들이 참제하였다.

이날 제전의식은 김상욱(로템기획 대표)씨 사회로 정대채 집례와 김옥란 집례해설에 의하여 창홀과 제례악에 맞추어 먼저 이충구 제전위원장의 감찰을 마치고 최성 고양시장의 전폐례,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 음복례 이어 망료례 순으로 제례를 봉행하였다. 제례헌관은 초헌관 최 성 고양시장, 아헌관 박윤희 고양시의회의장, 종헌관 이세준 고양향교전교, 이충구 충장사제전위원장, 집례 정대채 충장사제전위원, 대축 권정택 권문(權門)의 기로회장, 상례 김광주, 진설 및 봉작 선호술, 봉향 장한진, 봉로 한유수, 전작 김영호, 사준 이정례 충장사 제전위원이 하였다. 제전의식을 봉행하는 동안 집례해설로 이곳 행주산성의 유래로 "행주대첩이 있었던 행주산성은 국운을 구해 낸 민족의 성지로 400여년이 지난 오늘날 국가의 유적지로 지정되어 호국의 뜻을 기리고 있으며 권율도원수 제향은 행주산성내 권율도원수의 사당인 충장사(忠莊祠)에서 행주대첩제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헌종 8년(1894)에 사액(賜額)된 기공사가 6. 25전쟁으로 소실 된 후 미 복구 상황에서 고 박정희 대통령재임시 행주산성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1969년 7월 착공, 1970년 11월에 축조된 사당내에 도원수의 영정이 모셔있으며 충장사 현판은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입니다." 라고 하였다.

△420주년 행주대첩제에서 이동재권율부대장이 헌화 후 분향하고 있다.

제례의식이 끝나고 권율부대장 이동재 장군이 헌화와 분향하고 이어서 안동권씨대종원 임원진으로부터 분향에 이어 장병순 그리고 일반 참배객이 모두 분향을 마쳤다.

10시40분부터 대첩문 광장 도원수 동상 앞에서 승전을 기념하는 군례의식(軍禮儀式)이 20분간 펼쳐졌다. 삼군사령부 의장대장이 권율부대장에게 사열 보고를 하고 최 성 시장, 권문 회장단, 일반참배객이 참석한 가운데 3군사령부 군악대 연주에 맞추어 의장대 총검의장 시범과 승리에 행진 팡파레 등 그날에 승리의 함성을 고취시켜 참석한 관중들로부터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의식에 앞서 권율부대 강신원 작전참모가 참석내빈에게 승전(勝戰)보고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행주대첩은 지금으로부터 420년 전인 1593년 2월 12일 이곳 행주산성에서 군. 관. 민, 승려가 총력전을 펼쳐 일본군을 크게 물리친 전투입니다. 이 전투로 인해 일본군은 임진왜란 발발 1년여 만에 주력부대에 큰 타격을 입었고, 서울에서 조기에 철수하였습니다. 1593년 2월 초, 전라도 관찰사 겸 순찰사였던 권율장군님은 일본군에게 빼앗긴 서울을 되찾기 위해 관군을 이끌고 북상하여 이곳 행주산성에 주둔하였습니다. 당시, 행주산성 주둔 병력은 2천3백여 명이었고 아녀자와 아이들이 대부분인 민간인이 수백 명 있었습니다. 행주산성이 서울의 관문이자 남과 북의 길목에 위치한 핵심 요충지여서 일본군이 대 결전을 펼칠 것이라고 예상한 권율장군은 민. 관. 군 총력전을 준비합니다. 한강을 이용해 배수진을 치고, 성벽 앞에 이중으로 목책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일본군의 조총 탄환을 피할 수 있게 성벽 위에 흙벽을 구축하였고, 돌덩이를 멀리 날려 보낼 수 있는 수차석포, 지금의 다연장 로켓에 견줄 수 있는 신기전, 화차 등의 무기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사들 모두에게 재를 담은 주머니를 허리에 차도록 하였습니다.

아녀자 등이 대부분인 민간인들에게 앞치마를 개조한 치마를 입혀 돌덩이를 나르도록 하였는데 나중에 이를 두고 행주치마라는 말의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민간인들까지 전투지원 임무에 투입할 정도로 권율장군은 행주산성 전투가 나라의 명운을 좌우할 것을 예감하면서 결사 항전의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1593년 2월 12일 새벽 6시,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본군은 조선군의 10배가 넘는 총 3만 명의 병력을 투입해서 조총, 대포, 기마병 등을 앞세우고 3천여명 단위로 연속공격을 펼쳤습니다. 3만명이 한꺼번에 공격하지 못한 것은 이곳 행주산성이 남쪽으로는 한강, 북쪽으로는 창릉천이 흐르고 주변 대부분이 뻘 지형이어서, 진 출입할 수 있는 입구가 한 곳 밖에 없는 천혜의 요새지형이었기 때문입니다. 권율장군은 이런 지형의 이점을 십분 활용해 화차와 총통, 신기전, 투석기 등의 특수무기로 공격해 오는 일본군을 집중 공격해 궤멸시켰습니다.

특히 마지막 남은 일본군 제7제대가 공격해 올 때는 이미 성안의 주요무기가 다 떨어지자 직접 선두에 나서 백병전을 지휘했습니다. 각자 허리에 찬 재를 성벽을 기어오르는 일본군에 뿌려 눈을 뜨지 못하게 하고 부녀자들이 행주치마로 옮겨온 돌을 던져 쳐 죽였습니다. 부녀자들까지 합세한 총력전 끝에 가장 치열했던 일본군 제7제대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방어하면서 행주산성 전투는 아군의 승리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불과 2천3백여 명의 병력으로 10배가 넘는 3만 명의 적을 무찌를 수 있었던 행주산성 전투는 현대전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전투였습니다.

권율장군의 통찰력으로 천혜의 요새지형에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전투상황에 직면해서는 단순히 방어에 전념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공격과 방어를 융통성 있게 펼쳤기 때문에 적에게 큰 피해를 입히면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투로 인해 적군은 약 만여 명의 희생자를 내면서 재기 불능의 상태에 빠졌고, 사기가 급격히 떨어져 결국 3개월 뒤인 1593년 4월에 서울을 포기하고 남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임진왜란 3대 대첩의 하나인 행주대첩입니다. 대첩이 있은 다음 권율장군은 병력을 이끌고 파주산성으로 옮겼고 후일에 도원수로 진급하였습니다." 라고 승전보고를 하였다.

〈2면에서 계속〉

△좌상: 헌관 및 축관이 동계로 오르다, 우상:권혁승 상임부총재의 분향, 좌하:이동재 권율부대장과 권경석 사무총장의 제천행사 협의, 우하:3군사령부 군악대의 행진.

△충장사 제전행사를 위한 삼군사령기를 선두로 장수복 무관들이 오르고 있다.

△행주대첩 기념제에서 3군사령부 의장대의장 행사 후 고양시장과 권율 부대장의 격려

△권율부대 작전참모가 부대창설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3군사령부 의장대가 도원수 동상앞에서 권율 부대장에게 사열준비신고를 하고 있다.

계사년 태사묘 춘향대제 봉행

癸巳年 太師廟 春享大祭 奉行

지난 3월 22일(금)인 음력 2월 중정일(中丁日) 11 : 00 태사묘우(太師廟宇)에서 태사묘관리위원회(太師廟管理委員會)가 주관(主管)하여 <권씨(權氏), 장씨(張氏), 김씨(金氏)> 삼성(三姓)의 참제원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계사년 춘향대제(春享大祭)를 봉행(奉行)하였다.

△안동태사묘우에서 태사묘 춘향제를 봉행하고 있다.

이날 분정(分定)은 초헌관(初獻官) 권오석(權五錫), 아헌관(亞獻官) 김광년(金光年), 종헌관(終獻官) 장화익(張華益), 축(祝) 권오창(權五昌), 장기창(張起昶), 김현준(金顯俊), 찬자(贊者)는 권오주(權五柱)가 담당였다.

제례를 마치고 숭보당(崇報堂)에서 음복례가 끝난 후 장희경(張熙慶) 태사묘관리위원장의 인사와 권오익(權五翼) 사무장의 경과보고, 권경웅(權敬雄) 감사(監事)의 감사보고 후 사무장의 임진년 결산보고가 있었다.

모든 행사가 끝난 후 오찬과 환담(歡談)을 나누다가 해산(解散)하였다.

〈보도부장 권영건〉

경 제25회 안동권씨 청·장년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축

有親이 自遠方來하면 不亦樂乎야 전국 청·장년회 체육대회를 통하여 전국 각지에 있는 족친간의 정을 나누고 우의를 돈독히 하며 선조님의 빛난얼을 되새기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권문의 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목적으로 경북 영주에서 안동권씨 청·장년회 전국 체육대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경향각지 권문가족님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 일 시 : 2013년 04월 28일(일)10시
- 장 소 : 영주시민운동장(영주시 가흥1동 산21-1)
- 연락처 : 경북 영주시 선비로 225번길 46〈안동권씨영주종친회관〉
- 전 화 : 사무실 054)633-8984 FAX겸용
  대회장(권영순)011-548-1953
- 경기종목 : 줄넘기, 카드뒤집기, 400m 계주
- 번외경기 : 제기차기, 고무신 멀리차기
- 경기일정
  - 개회식 10:00 -다과회 11:00
  - 노래자랑 14:00 -폐회식 15:30~16:30

안동권씨전국청·장년회장 영주 청년회장 : 권영순

安東權氏宗報 종시: 승조이념확립·애족사상고취 후학계도기여·사회윤리배양
발행인 권정달 편집인 권경석 인쇄인 권영웅
발행장소 : 안동권씨대종원 :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5-3(2층)
우: 130-820 전화 (02) 2695-2483/4 FAX (02) 2695-2485
안동사무소 : 경상북도 안동시 태화동 418-1(3층)
우: 760-905 전화 (054) 854-2256 FAX(054)854-2257
태사묘 연락소 : (054)859-2346 안동시 북문동 24-1(서재)
E-mail : ankwon2695@naver.com / ankwon2695@nate.com

편집위원	권계동, 권오복, 권혁채
기 자	권범준, 권혁세, 권경일, 권오인
자문위원 : 권중달, 권인호, 권영한, 권태하, 권영섭, 권오창	

예금주 및 계좌번호(안동권씨 대종원)
권 경 석 국민은행 448601-01-378019
(중앙종친회) 농 협 076-02-247343
종보사(개인독자)
우체국 : 종보사
010108-01-000369